韓, 군집위성 '네온샛 1호' 발사 성공… 재난·안보 대응 선도

'네온샛' 한국판 스페이스 X 평가
초소형 위성개발 등 기술확보 기여
"3년간 지구관측 임무 수행할 것"

한반도 우주 시대를 이끌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NEONSAT) 1호'가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번 군집위성이 고빈도 정밀 감시로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네온샛은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판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우주 산업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초소형군집위성 1호 '네온샛'이 오후 2시 13분과 오후 3시 44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네온샛은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초소형 군집위성(Satellite Constellation)은 지구관측용으로 소형 위성 여러 대를 묶은 것이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한국시각 24일 오전 7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Electron)'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네온샛은 당초 7시8분57초 발사가 예정되었었지만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위험성으로 인해 오전 7시14분56초로 미뤄졌다. 다만 기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별돼 당초 예정 시간보다 24분 늦게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

. 네온샛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총 11대로 구성되었으며 군집 운용을 통해 500㎞ 고도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기존 중대형 위성과 달리 높은 해상도로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역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초소형위성 개발, 초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등 새로운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요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위성영상 수요를 대부분 충족해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6월에 5기, 2027년 9월에 5기를 추가로 발사해 초소형 위성 총 11대가 군집을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5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2,315억 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군집위성 11기는 3년간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한다"며 "국내 우주시스템 개발의 양산체계 공정 구축 등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 생태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티에스'(BTS)란 임무명이 붙은 이번 1회기 발사는 총 11기 군집 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첫번째 단계다. 1호기의 적응 테스트를 바탕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성능을 보완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씩 추가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물가 시대' 카드사, 할인·무제한 적립 등 민생 마케팅 확대

신한 '딥오일', 주유소 최대 10%↓
삼성 'iD에너지', 통행료 등 결제일 할인
우리 '디어쇼퍼' 쇼핑 5% 무제한 적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로 신용카드사도 민생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마트, 쇼핑몰, 주유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늘리는 중이다. 매달 많게는 1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물가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필수템'이 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이다.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농식품, 공산품, 전력과 가스비 등 공과금이 오른 영향이다. 이어 이달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1원이다. 5개월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주유금액 할인은 '필수'

신한카드의 '딥오일(Deep Oil)'카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주유소에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정유사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주유특화 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거주지 인근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 1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 조짐에 신용카드사도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전월 실적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만원까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연회비가 1만원(국내전용), 1만3000원(해외겸용)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 첫발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의 'iD 에너지' 카드는 ▲주유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대리운전 이용 건에 관해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1만원 이상 주유하면 1만원 할인을 월 3회 제공한다. 삼성카드가 조사한 결제데이터에 따르면 ℓ당 평균 325원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주유와 생활영역 할인을 동시에 담았다. 전월 실적 120만원 이상 사용하면 주유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할인한도는 타 카드사 대비 낮지만, LPG 차량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알뜰주유소도 가맹점에 포함했다. 아울러 택시업종의 할인한도도 월 1만2000으로 책정했다.

◆ 밥상물가 부담 낮추는 카드는?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회비 15만원으로 일반 카드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카드의 '디어 쇼퍼' 카드는 패션, 백화점 등 업종에서 5%를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특화 업종 외 적립률은 이용금액의 1%다. 연 1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5만 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매년 특별 기프트도 제공한다. ▲호텔 외식이용권 1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H포인트 10만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연 5만원에 무제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아워(Our)위시' 카드로 흥행에 성공했다. 2인 이상의 생활비 소비 패턴 특화 혜택을 담아내면서다. ▲우리를 위한 선택 ▲두리를 위한 선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은 마트, 백화점, 동네생활 등 3개 영역 중 1개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이어 '두리를 위한 선택'은 ▲문화생활 ▲교육업종 ▲병원업종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10% 청구할인 혜택을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맥스'를 마련했다.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할인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어 5대 생활업종에서의 사용금액의 5%를 월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할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생활비 절감 카드는 특정 가맹점과 밀착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연회비 대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고물가 시기 합리적인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파산신청 서울시민 10명 중 8명 50대 이상

남성·1인가구 비중 가장 높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가운데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한은 "미래 경제위기 예측 가능하다"

AI·ML 활용해 조기경보 모형 개발
금융·외환 위기 발생 시 조기 경보 가능

한국은행이 6개월 이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내다보고 조기경보를 울릴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했다. 해당 모형은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스템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보다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4일 'BOK 이슈노트: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금융 외환 조기 경보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기준으로 위기·시기 불안기간을 식별해 위기발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변수(트리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박정희 한은 디지털혁신실 과장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트리앙상블 모형(ET)을 적용한 조기경보 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력(0.95, ROC-AUC 기준)을 나타냈다"며 "1990년대 이후 조기경보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는 신호추출법(SE)의 예측력(0.84)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